목장 모임 인도자가이드

2021. 2. 28.주일설교 **"선교: 예배 후의 예배"** (요한복음 20:21-23, 사도행전 1:8)

DONGAN CHURCH

말씀 나눔과 적용(Word)

1. 보냄받은 자로서 우리 주변을 돌아보고 교회 및 이웃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이 없는지 돌아봅시다.(요 20:21, 요 20:23)

☞ 리처는 니버((N. Richard Niebuhr) "개혁은 여태 몰랐던 것을 새로 찾는 것이라기보다는 이미 있는 것을 전혀 다르게 보게 될 때 일어난다. 알고 있는 것을 새롭게 바라볼 때 개혁과 새로운 일이 일어난다"고 말했습니다. '구원'에 대해서 개혁자들이 성경을 기초로 '이신칭의'와 '구원'을 새롭게 봄으로 종교개혁이 이루어 졌듯이 '선교'에 대해서도 새롭게 바라보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.

☞ 전통적으로 교회란? 전도, 봉사, 교육, 교회개척 및 성장, 해외파송 등의 개념으로 역할을 정의했습니다. 그런데 새롭게 보아야 할 것은 '교회가 곧 선교다'라는 사실입니다. 교회는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라고 하나님이 불러 모으시고 흩으시는 보냄 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.

☞ "교회 없는 선교나 선교 없는 교회는 둘 다 모순이다."
"교회가 선교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교회가 곧 선교다."

2. 지금 이 시간, 이 공간에서, 내 삶의 현장에서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? 성령의 권능으로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? 함께 나눠봅시다. (요20:22, 행1:8)

☞ 초대교회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강림으로 시작했습니다.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을 때, 제자들은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천하만국에서 모여든 유대인들에게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, 곧 방언으로 복음을 증거 했습니다. 즉 교회의 선교는 성령으로부터 시작해서, 성령으로 진행되고, 성령으로 열매 맺는 것으로 증명됩니다.

☞ 성령충만한 교회는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는 교회입니다. 권능이란 '힘'을 말합니다.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덧입어야 합니다. 즉 성령으로부터 오는 힘,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하셔야 우리는 복음의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.

3. 예배후의 예배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.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가장 어려운 곳은 어디인가요? 그리고 앞으로의 삶을 자세를 다짐해 보면 좋겠습니다. (막 12:30-31, 요 4:23)

☞ "예배는 선교로 흘러넘치고, 선교는 예배로 마무리된다."(스캇 선퀴스트)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 되며, 성령 충만함으로 세상 속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이 선교입니다.

☞ 성령 충만한 교회는 모여서도 예배하고, 흩어져서도 예배해야 합니다.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'하나님 사랑'의 실천이라면, 흩어져서 예배하는 것은 '예배후의 예배', '이웃 사랑'의 실천이라 말 할 수 있습니다. 즉 '예배후의 예배'란?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.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입니다.